

금암1·2동 통폐합 설명회 개최 '백제대로 310' 쌍방향 현장 소통단 운영

전주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서 주민 200여명 대상 의견 수렴

전주시가 금암1동과 금암2동의 행정 구역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암1·2동 통폐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

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인구 7932명과 9500명인 금암1동과 금암2동도 통폐합 검토 대상이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동 통폐합 필요성 및 연혁 △주민 지원방안(인센티브) △전국 행정동 통폐합 사례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대책 △추진 절차 △주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

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암1·2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향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금암동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설명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시민 10명 위촉...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개선 사항 등 개선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들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만들기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7일 '백제대로 310' 쌍방향 현장 소통단 간담회를 가졌다.

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통단 소속 시민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통단의 역할과 함께 전주시 공영주차장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공모를 거쳐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소통단원으로 선발했다.

소통단은 연말까지 '백제대로 310' 소통방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몸소 느낀 개선 사항과 혁신 아이디어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우수한 활동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소통단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공단은 무료 주차장 71개, 유료 주차장 39개 등 총 11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백제대로 310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각 시설별, 중



전주시설공단이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해 지난 17일 '백제대로 310' 쌍방향 현장 소통단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보건소,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수여식 가져

헌혈 정신 고취·헌혈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458회 참여한 헌혈유공자의 집에 명패가 내걸렸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지난 16일 덕진구에 거주하는 헌혈유공자인 황옥 씨의 집에서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과 이남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이명옥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는 헌혈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예의를 높이기 위해서 혈액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대화 헌혈자를 상징하는 명패로, 5월 한 달 간 전국의 400회 이상의 헌혈자 약 300명에게 전



전주시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지난 16일 덕진구에 거주하는 헌혈유공자인 황옥 씨의 집에서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수여식을 가졌다.

달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내 명패 수여 대상자는 458회 헌혈에 참여한 황옥 씨 등 18명이다.

헌혈유공자인 황옥 씨는 이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헌혈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헌혈인구 확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헌혈 통해서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헌혈의 집 명패 수여를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로 발돋움하길 기대하며, 전주시도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진북동 주민자치 연합 선진지 견학 가져

충남 부여·세종 일원서 친목 도모·지역발전 방안 모색

덕진구 진북동(동장 국승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성)는 지난 17일 충남 부여 및 세종 일원에서 주민자치 위원 및 각 자생단체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단합과 결속 도모를 위한 '진북동 주민자치 연합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 및 자생단체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들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

고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종성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발전의 우수사례를 배우고,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자생단체 간 화합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승기 진북동장은 "항상 우리 진북동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주민자치 및 자생단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을 계기로 하나로 뭉쳐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진북동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여성 취업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전주시, 20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전주시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들레홀에서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 온 20개 기업과 '2024년 전주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은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로서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 및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추진은 위탁기관인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맡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안방직(주) △(주)바론 △(주)티그리스 등 2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협약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 노력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기업의 핵심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모성보호와 정서 퇴근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 도입 및 실시 △채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개 기업과 '2024년 전주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용·승진·임금 등에서 차별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60여 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여성친화 일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선 지원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전용 시설 환경개선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주시도 여성의 고용 확대 및 고용유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이었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